東亞日報
主筆 … 發行人 … 編輯人 … 印刷人 …
發行所 서울市太平路 東亞日報社
定價 月 金六十圓

信託統治의 强要는 謀略

우리 政府樹立하는데 言論封鎖는 不當

共委書翰發表後各界의 輿論

南朝鮮美軍司令官하－지中將은 美소共同委員會再開에 關한 書翰을 提示하얏는바 그것은 明白히 同中將의 聲明에 署名한것을 三相會議決定을 全的으로 支持한다고 看做한다는 것은 우리 民族에게 信託을 强要하려는 謀略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을 指摘하지 아니할수 없다. 우리는 하－지中將의 二次나 發한 聲明을 依例하야 第五號聲明에 署名하고 共同委員會에 參加하더라도 自由로 發言할수 있음을 …

七條에 規定된 條件은 하나도 우리에게 適用될수 없다. 그럼으로 信託統治를 問題에 云々하는 것은 同意에 違反이다. 大西洋憲章第三項原則을 尊守하는 全世界에 있어서 韓國만은 「自己가 依據하야 生存할 政府의 形式을 選擇할 權利」가 剝奪되는 理由는 敗戰國인 日本에 對하야 …

民主議院聲明

南朝鮮美軍司令官 하－지中將은 美소共同委員會再開에 關한 書翰을 … 三相會議決定 …

太西洋憲章에 違反

自由民族의 歷史否定

韓獨黨聲明

一、信託統治云々은 韓國國民의 意思를 無視한 것이며 韓國民族의 歷史的 … 韓國은 (1) 委任統治를 받은일이 없고 (2) 韓國國土는 法的及史的으로 日本의 領土가 아니며 (3) 韓國은 託治를 自願하는 政府를 가지지 안었고 또 안을것임으로 世界憲章第七 …

「모스코」協定의 信託統治에 關한 條項을 … 相反되는 政黨과 社會團體의 代表를 拒否하자는 것은 自由를 封鎖하자는 것이다 …

信託의 自然解消

民族의 總意로反對!

韓民黨聲明

하－지中將의 提案은 … 信託統治를 贊成하는 政黨과 社會團體에 限하야 協議하자는 … 元來朝鮮의 民主政黨과 社會團體로부터 朝鮮援助(信託)의 方案을 案出하기로 規定한 모스코決定 그自體의 條項에 依하야 信託統治는 朝鮮民族의 總意의 反對로써 自然解消된것을 聲明한다.

하－지將軍 立議議員招待

「하－지」中將은 十五日下午三時부터 五時까지 同中將官邸에 立議代議員을 招請하야 茶菓會를 開催하리라 한다.

서도 「포스담」宣言에 「日本民族을 奴隸化하거나 …」 … 우리는 和平手段으로 獨立國家를 完成하고 自主的方法으로 民族의 統一을 再建立할것뿐이다.

全州事件은 保留

立議十次會議서 71對18로議決

立議十次會議는 … 全州事件에 對하야 …

「立議」서또動議

十一次會議

…

民意에 符合된 臨政을

民族의 奴隸環境을 免케하라

우리는 지난 一年間 祖國朝鮮에 關한 모든 發言과 代表가 蘇共委에 期待해왔다. 그러나 이 우리의 目的은 … 民統、民協、非常國會、獨促國民會、韓獨黨、韓民黨 …

越佛河內附近에서 大激戰

【로스안젤스 十三日發共立】 印度支那로부터의 報道에 依하면 河內附近에서 佛國西軍과 越南軍사이에 大激戰이 展開되고있다 …

諜報蒐集에 汲々

蘇脫走官蘇內政暴露

【뉴욕 十四日發INS合同】 …

獨促監察委員改編

獨促國民會에서는 … 監察委員을 改編하였다 ▲委員長 … ▲副委員長 …

美誌論評

反共戰에 二十億弗이 必要

世界左翼進出에 美大關心

【뉴－욕十三日發AP合同】 美誌「월드·레포－트」誌는 … 全世界의 經濟復興과 共産主義의 發展에 關하야 … 美國은 美國外部에있어서의 共産主義의 擴大를 停止시키는데 …

▲獨逸 … ▲朝鮮 … ▲日本 … ▲中國 …

複雜

和蘭

住民

以上

人事

▲尹致暎氏 … ▲金秉淳氏 … ▲許政氏 …

江原道寧越邑
自動車修理加工·鐵工·土木建築業
東亞工業社
代表 俞俊吉
電話 一六番

寧越專賣支局
職員一同

祝新年
江原道
寧越警察署
職員一同

寧越郡廳
職員一同

朝鮮電業寧越鑛業所
所長 太完善

寧越(其一)

世界第一의重石鑛床을자랑하며
對美重石輸出을開始한
上東鑛業所
支配人 朴琛熙
現場 江原道寧越郡上東面九來里
本社 서울市中區明洞一街一〇
朝鮮重石(小林鑛業)會社

電力의消費節約
朝鮮電業寧越發送電事務所
所長 任錫煒
外從業員一同

寧越
報德寺
住持 金鍾圓

祖國再建의 좀·經濟破滅의 魔

續々暴露되는 謀利輩의 溫床은 어데기?

軍政官吏와 謀利輩連鎖劇에 特務課切開메스

(前承) [illegible] 의 뇌물 받 [illegible] 은 상무부장 정명채(鄭明采) [illegible] 일이래 긴장하야 [illegible] 파에서는 十二차 [illegible] 피혁계(皮革界)에 [illegible] 숨을 단행하는 「메스」를 나리고있다 조선피혁 파 한질모리배를 [illegible] 전국도상의 우리 경제계를 좀먹는 모리배들의 죄상은 [illegible] 궁에 새로운 기세를 올리고있는터로 금후의 수사망은 이번 사건외에도 이외의 방면으로 불똥이 될것으로 이수청장의 철파는 크게 주목되고있다

農藥으로 巨額詐取

幽靈會社만드른 農會職員들

방금 경무부 수사국 특무과에서는 [illegible] 파에서 적발되어 서울심리원에서 송국된 사건은 다음과같다 즉 조선농회 농장과장 이철규(李澈珪) 독약과장 이동하(李東夏) 농산부장 조원환(趙元煥) 등과 조선농약주식회사(農藥株式會社) 관리인대리 강은관(姜殷觀) [illegible] 이상인 三백여만원을 제공한 조선제지회사(朝鮮製紙會社) 서방락(徐邦洛) 외 피혁 모회사관계자들 [illegible] 인데 [illegible] 제一공산회사(第一物産)란 유령회사를 만드러노코 정말가격보다 비싸게 [illegible] 전표를 떼어 전후 一백여만원을 사취하다가 적발된것이다 [illegible] 의 모파장을 중심으로한사건 인천(仁川) 조선농화(朝鮮農化) 콘스탄치회사 사건등을 빌무로 군정관리 [illegible]

함석 謀利輩에

百萬圓罰金刑

모리배에게 나려지는 사법당국의 법적조처가 극히주목을받고 있는이때 六十만원으로 구입한물건을 二백만원으로 팔어버린 두사람에게 각각 五十만원의벌금과 三년간 체형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나리었다 시내 서대문구 [illegible] 김창근(金昌根)(三九) 파 도인화(都仁和)(四〇) 양명은 수색(水色) 육군창고에서 함석 양모 양파 석회 어저우등 각종물자를 군정청으로부터 六十만四천四백七十원으로 매입하야 이것을 二백十二만七천八백五원으로 팔어먹은 사실이 범정 [illegible]

職權濫用코 巨額受賄

尹署長瀆職事件搜査局서取調

수원서장 부임전부 문제상당한 [illegible] 로 한동안 문제를 이르키다시 수사국에서 [illegible] 얻은전인천서장 윤무준(尹武俊)씨에 대하야서는 그동안 경무부 사문위원회에서 사문한결과 경원보갑등 지위는 한편 十四일은 一파면 선고를 나리었다 그런데 그는 의외에도 인천에있는 「인천 「콘스탄치」 회사의관리인의 [illegible] 주고저 직권을 이용부당한 공작을하여 부당히 七十만원의 재산이득을 보게하여 [illegible]

朝鮮農學會創設

농업조선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야 [illegible] 창설되였다 이회는 농학파 [illegible] 조선농학회(朝鮮農學會)가 [illegible]

工博廣木配給事件

被服工場에飛火擴大

(分壯元) 관사로부터 김창 [illegible] 군에게 (가칭) 노임화에게 [illegible] 西계업에 각각 五十만원의 [illegible] 언도하였다 [illegible] 공업배합회에 배급한 광목 [illegible] 五천필에대한 사건은 工博 [illegible] 안 [illegible] 표자 이준필(李俊弼)씨를 [illegible] 검화하여 [illegible] 백九十七필중 [illegible] 내 [illegible] 중이라고한다

三文社 [illegible]

理由는안되나 하-지中將談

[illegible] 재판에서 [illegible] 한다 [illegible] 미군 四人이 [illegible] 당하였다는 [illegible] 다음과같다

◇김약수씨측=라승규는 사 [illegible] 로 되어 [illegible] 우리동맹에 침입하여 분 [illegible] 단호 숙청을 가하라고 하였다

民衆同盟內對立露骨化

민중동맹(民衆同盟) 내에 김약수(金若水)씨 세력파 라승규(羅承奎)씨 세력의 [illegible] 대립으로 몽동맹내에는 조 [illegible]

◇라승규씨측=김약수일파는 우리동맹내에 자기네의 세력을 부식강화하여 독천하하자는 [illegible] 리는 이들을 배제하라고부 [illegible] 하고있다

故金佐鎭將軍追悼會

조국광복을 위하야 항일투쟁의 기치를 들고 만주벌판에서 전전하다가 마침내 [illegible] 장군의 [illegible] 주도 [illegible] 十七주 [illegible]

移讓한事務다시返還要求

서울市石油事務等다시美人손에

행정의 이양 [illegible] 며 조선인관리 [illegible] 하게 될 [illegible] 주었던 [illegible] 국에관한것은 [illegible] 三일이후는 석유 [illegible] 서명이없이는 배급하지못 [illegible] 하고 또한 [illegible] 이러한 처사를하게 된것은 어떠한 이유로서 그러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illegible] 판게자인 [illegible] 이에대한 조선인관리 [illegible] 에 대한 전체적 문제가 [illegible] 기다면은 [illegible] 이지만은 다만 「비스켓」 [illegible] 문제같은것이 재연되지 [illegible]

◇趙商工局長談 미군정관이 [illegible]

犯罪軍人은監禁

犯罪確認되면嚴重處罰

美軍凌辱事件에 하-지中將談話

[illegible] 조선부인안 대전(大田) 근처 열차안에서 미국인으로부터 능욕 사건에 대하야 조선인간에 상당한 물의를 이르키고 있는것을 알었다 나는 아직 이사건에 대하야 상세한것을 알지못하나 방금 수한 조사관을 보내어 조사중으로 범죄군인은 엄중히 감금하도록하였다 미국에서는 부인능욕은 매우 중대한 죄로 취급하게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번일을 범행한 군인을 적당히 처벌하는것은 조선사람에 지지 않을만큼 심심한 판심을 가지고있다 그러며 이사건에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일이 각신문의 보도는 상당히 과장된것이 있었다 그러나 만일 미국군인으로서 공욕죄를 범한자가 있다면 이곳 산속 [illegible] 에 대하야 [illegible] 할것입을 확인하다 [illegible] 안케다는것도 조선국민에게 뿐만아니라 정의를완수하기위하야는 조금도 주저치 [illegible] 확인할수있는바이다 그러므로 만일 미군인의 범죄가 확실할때에는 범대한 [illegible] 로 이를 [illegible] 하지는 않을것이다 만일 그들이 정말 그런일이 있었다면 법률이정한 중형을 바더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illegible]

하울[illegible] 伍長談

범죄가 확실할때에는 강대한범죄는 상상도 할수없는 만행이다 [illegible] 나와같이 생각한다 우리들중에는 결혼하고 자녀 [illegible] 가진 군인도 [illegible] 의 부녀가 능욕을 당한다면 [illegible] 에 우리는 어떠케 생각할 [illegible] 것을 잘알 [illegible] 리는 그들에게 준엄을 요 [illegible]

短篇連載小說 길 (5)

金 永 壽 作 / 陶 心 畵

[illegible] 서라도 한장 얻을텐데 하고 기대려 보아도 그나마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가서 잘 있겠거니 하고 평양으로 여기었고 웬만하면 저울 출장이래도 한번 올라올텐데 하고 그 런 때가 돌아오기만 은 근히 기다리었다。

그러자 어느날 밤이었다。

부슨 용건이었지 재밌던지 어디서 나온것인지 나로서는 이런것에 대해서는 지식도 없었지만、하여튼 편집국장 으로 [illegible] 간다는 군 앞에서 우리 몇 친구들은 그의 앞길을 빌었고、부디 가서 한바탕 수완을 보이라고 신신당부 하지 않을수 없었다。

허나 손군이 광주로 떠나간후 달포가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한마디

국화장 끄개를 넘어다니 노랗면 빨이 시려서 뭇도리라도 청청 얼굴을 쌌고 다닐 때 였으니까 동짓달이 훨씬 넘어서였는지 모른다。 밤이 꽤 깊어서 마악 자려고 자리에 누었으려니까 밖에서 요란히 대문을 흔들며 떠드는 소리가 났다。 (「야, 손군이 왔구나。」)

[illegible] 그저 「김형、김형!」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illegible] 어도 손군 목소리가 [illegible] 그것은 얼른 귀결에 [illegible] 명 하였다。 그래도 (광주에 가 있는 손군이 이 밤중에 올리가 없을 텐데……) 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뒤 비켜 러니、 「김형! 나요 「자유신문」 [illegible]

얹었소?」 「그래 가서 고생이나 가 다 나왔다。」 위었고 앙상하니 광대뼈 앉는데 아주 마른 얼굴이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서울 있을 [illegible] 딸게다。 오나 가나 게지 쓰고 입고 가면 진파는 바지도 돌린 마지고 사 [illegible] 은 옷이 첫째 변했다 그 얼굴도 변했지만 [illegible] 하였다。

「오생……」 하고 [illegible] 「응응、춥다 어서 들어와」 「그러니 [illegible] 끝을 잡고 방으로 [illegible] 「소식좀 있어서……」 [illegible] 「그래 [illegible] 신문은 [illegible] 마디 [illegible] 「고생 [illegible]

洪城法院檢事局職員一同
洪城法院公證職員一同
洪城邑 朝陽호텔 金運玉
洪城邑 李昌仙
洪陽水利組合職員一同
金泉商事(?) 金 毅 洪
洪城稅務署職員一同
永昌號印刷鋪 金 同 烈
明信堂書店 宋 相 鳳

洪城菓子店 朴 炳 秀
洪城司法書士 朴 荣
洪成農具耕作組合職員一同
金馬商會 南興鐵工所 李 炳
洪城邑 梁 在 昌
文化堂書舍 閔 周 [illegible]
洪城邑 田 容 [illegible]
朝鮮料理 湖 月 館 電話七二番
洪城精米所 金 [illegible]

洪 城

世昌織物工場
世 昌 商 會
金 世 煥

咸昌市場
咸昌織物工場
主 李 英 熙
咸 昌 (筆)

百貨店 東 和
(前三越)
서울市忠武路入口

賀正 丁亥年

求工場 都心地區에서 三十坪以上工場으로 [illegible]
三和藥業社 (永保빌딩別館) 電話光⑤三〇二八

讓渡事務室 (家具付)
都心地帶 二十坪 [illegible]
石油 [illegible] 記로問議하시오
中介絶對謝絶
電話⑤二九八番

求毛布 幅四尺以上 長六尺以上
[illegible] 求합니다
連絡處所 電本六二八八番

朝鮮樂劇團
特選傑作週間
아름답서글(?) 노래하는 人道(?)
19日曜日 三回公演 第一回午前11時 第二回午後3時 第三回同5時 開幕
15日 東洋劇場

男女學生募集 朝鮮第一自動車學院
各三〇名募集
[illegible] 夜間部 [illegible] 開始
自動車關係書籍及手續代行 [illegible]

石綿
石綿板、石綿糸、石綿布
아스베스트시트
石綿及ヒ製品一切
朝鮮아스베스트工業株式會社代理店
城東商社
代表 吉 承 培
서울市乙支路四街一七
電話本局⑵七六八番

愛馬家諸氏에게
本會로서 [illegible] 一月十五日부터 [illegible] 二十一日까지 [illegible]
韓國馬事會競馬部

帳 習 學
學用元 小造國信洋行
大製 中工場
서울市中區乙支路 [illegible]
電話光③三二八番

各種學習帳 紙加工品
敎育品 製造販賣
韓光紙物商會
서울市乙支路三街二五五
電話本局②四四六六

京城學用品商會
서울市中區乙支路四街二八九
電話本局③四三五六番
振替京城二八九五一番